

# 한국의 자동화목록법 관련 규칙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 KORMARC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Historical Developments of the Rules Related with MARC in Korea - focused on KORMARC -

도 태 현(Tae-Hyeon Doh)\*\*

### 목 차

- |                         |                       |
|-------------------------|-----------------------|
| 1. 서 언                  | 3. KORMARC 기술규칙       |
| 2. KORMARC 포맷           | 3. 1 제정 및 개정과정        |
| 2. 1 제정과정               | 3. 2 KORMARC 기술규칙의 특성 |
| 2. 2 KS포맷 제정에 이르기까지의 변화 | 4. 요약 및 제언            |
| 2. 3 KORMARC 포맷의 특성     |                       |

### 초 록

이 연구는 한국의 목록규칙 발전과정에 관한 연속연구의 한 부분으로 KORMARC 포맷과 KORMARC 기술규칙을 중심으로 한국의 자동화목록법 관련 규칙의 발전과정을 다루었다. KORMARC 포맷은 LCMARC와 UKMARC를 근간으로 하여 1980년 실험용포맷이 개발되었으며, 이후 1981년 표준용포맷, 1984년 표준포맷, 1991년 한국정보관리학회 개정안을 거쳐 1993년 KS포맷으로 확정되었다. KORMARC 기술규칙은 ISBD를 근간으로 하여 1983년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 기술규칙: 단행본용』 예비노트판, 1985년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 기술규칙: 단행본용』 예비노트보완판이 출간되었으며, 1991년 한국정보관리학회의 개정안을 거쳐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KORMARC)에 관한 연구: 단행본용 기술규칙』으로 출간되었다.

### ABSTRACTS

This study is a part of the serial studies on the historical developments of cataloging rules in Korea and focuses on the rules related with KORMARC. As for KORMARC formats, the experimental format based on LCMARC and UKMARC was developed in 1980, after that, *KORMARC Pyojunyong Format* for monographs in 1981, *KORMARC Pyojun Format* for monographs in 1984. At last *KORMARC KS Format* for monographs has been published in 1993 after discussing carefully the revised scheme of KORMARC format by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e pre-note edition of *KORMARC Description Rules* for monographs, based on ISBD, was published in 1983, the revised pre-note edition in 1985, and at last *A study on KORMARC Description Rules for Monographs* by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in 1991.

키워드: 자동화목록법, 목록규칙,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

- \* 이 논문은 동의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 동의대학교 인문학부 문헌정보학전공 교수(thdoh@hyomin.donggeui.ac.kr)  
논문접수일자 2002년 5월 3일  
게재확정일자 2002년 6월 6일

## 1. 서 언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시간의 흐름과 인과관계를 통하여 이어진 연속선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준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역사의 연구는 인간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지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목록이나 목록규칙의 역사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목록규칙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돌아보고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현재의 상황을 보다 명확히 통찰하고 나아가 미래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지침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한국의 목록규칙 변천과정에 관한 연속 연구의 한 부분이다.

이 연구에 앞서 수행된 연구들(도태현 2000, 도태현 2001)에서 연구자는 한국의 목록규칙 변천과정을 시대별 특징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한 바 있으며, 특히 자동화목록법(Machine Readable Catalog, MARC)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목록규칙에 획기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므로 우리나라에서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KORMARC)이 개발되기 시작한 1980년 이후를 따로 구별하여 '자동화목록 시기'로 구분한 바 있다.

자동화목록시기, 즉 목록작업에 컴퓨터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목록레코드의 작성에는 서지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한 기존의 목록규칙과, 이들 서지데이터를 기계가독형으로 변환하기 위한 MARC 포맷이 함께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동화목록과 관련한 목록규

칙에서는 기존의 표목 및 기술에 관한 규칙과 더불어 MARC 포맷도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자동화목록법의 개발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 KORMARC 포맷과 이 포맷에 입력할 서지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한 KORMARC 기술규칙 등이 개발되었고 이들 각각은 수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국립중앙도서관 외에서도 자동화목록법에 관한 연구와 개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파급효과를 고려해 볼 때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수행된 KORMARC 포맷과 KORMARC 기술규칙의 제정 및 개정 과정은 우리나라의 자동화목록법 관련 규칙의 변천사라고 하여도 크게 틀림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KORMARC) 포맷과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KORMARC) 기술규칙이 제정 및 개정되는 과정, 내용의 변화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자동화목록법 관련 규칙 변천과정과 특성을 살펴보고 또한 장차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KORMARC 포맷은 단행본용 포맷에 이어 연속간행물용, 비도서자료용, 고서용 등의 포맷이 계속 제정되었고 이들 각각에 대한 기술규칙들도 따로 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논의의 초점이 흩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그 범위를 단행본용 포맷과 기술규칙에 한정하여 다루기로 한다.

## 2. KORMARC 포맷

### 2. 1 제정과정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1976년 업무전산화의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최우선적으로 목록업무를 전산화하기로 하였으며, 목록업무 자동화계획은 일차적으로 1980년 2월 KORMARC 실험용포맷을 개발함으로써 결실을 맺었다. 이 실험용 포맷은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수정, 보완되어 1981년 6월 『KORMARC 단행본용 표준용포맷』제1판으로 제정되었다. 이 표준용 포맷은 LCMARC의 기본구조를 준용하고 UKMARC의 식별기호 규정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개발되었으며, 또한 입력되는 데이터 요소는 KCR2, AACR, ISBD 등의 제반 기술 요소를 참고하였다.

이후 KORMARC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동 이용을 위하여 1983년 6월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운영협의회가 구성되었고 1983년 9월에는 KORMARC 포맷의 개정작업을 담당하도록 이 위원회 아래 'KORMARC 개정기술위원회'를 두었다.

KORMARC 개정기술위원회'는 3차에 걸친 모임의 결과 1984년 5월에 『KORMARC 단행본용 표준포맷』을 제정, 발간하였다. 이 포맷의 명칭을 '표준용포맷'에서 '표준포맷'이라고 고쳐 부르게된 것에 대하여 당시 위원장이었던 박계홍은 "이로써 표준(standard)으로 사용할 수 있는 MARC 포맷이 제정된 것"(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개정위원회 1984, iv)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1988년 USMARC 포맷 첫판이 발행

된 후 다시 KORMARC 포맷 단행본용에 대한 개정안 작성 용역사업이 한국정보관리학회에 맡겨졌으며 이 작업은 1991년 7월부터 12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한국정보관리학회의 개정안은 1991년 12월 12일에 약 150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공청회를 거쳐 1991년 12월 25일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KORMARC)에 관한 연구 - 단행본용포맷" 사업의 최종보고서로 제출되었다.

한국정보관리학회의 개정안은 1992년 2월에서 3월 사이 다시 도서관계(155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KS(안)으로 작성되었다. 이 안은 1992년 6월 20일 문헌정보표준화추진위원회에 의해 심의되고, 1992년 7월 8일 주요기관 실무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공청회를 거쳐 KS(수정안)으로 작성되었다. 이 수정안은 다시 1992년 8월 13일 문헌정보표준화추진위원회에 의해 심의되었으며, 이를 KS(안)으로 채택하여 공업진흥청에 KS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KORMARC 포맷은 1993년 1월 6일 공업진흥청고시 제93-24호로 공표되었다.

### 2. 2 KS포맷 제정에 이르기까지의 변화

KORMARC 표준용포맷의 기본구조는 LCMARC 포맷과 마찬가지로 리더(Leader), 레코드 디렉토리(Record Directory), 제어 필드(Control Field), 가변 길이 필드(Variable Field)로 구성되었다. 그중 제어 필드는 001 제어번호, 008 부호화정보필드 등 2개의 필드로 구성되었으며, 가변길이 필드는 등록번호·제어번호·ISBN 등의 서지통정번

호 각종 분류번호로 구성된 지식번호, 기본기입·서명사항·물리적 기술·총서명주기·서지내역주기·주제명부출기입·부출기입·총서명부출기입·참조사항 등의 서지데이터를 기술하는 필드로 구성되었다.

KORMARC 표준용포맷의 제어필드 이하에 기입되는 데이터를 LC의 MARC II 포맷(丸山昭二郎, 井上哲也 1970, 104-127)과 비교해 보면 MARC II 포맷의 025 해외도서수집계획번호, 070 국립농업도서관 청구기호, 241 로마자화 서명필드와 같은 우리 도서관의 형편에서 불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필드를 표시기호와 함께 그대로 옮겨왔다. 그리고 010 등록번호, 012 국립중앙도서관제어번호, 052 국립중앙도서관 청구번호, 055 KDCP 분류기호, 056 KDC 분류기호 등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우리 도서관의 입장에서 필요한 필드들을 신설하였으며, 9XX 필드에는 표목의 참조를 위한 개인명, 단체명, 회의명, 서명 등의 참조사항필드를 두었다.

이후 표준용포맷에서 표준포맷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는 주로 UNIMARC 2판의 내용을 수용하여 KORMARC 포맷을 보완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실제로 KORMARC 표준포맷에서는 UNIMARC의 4XX 블록에 독립적으로 설정되었던 연관저록(Linking Entry) 필드들을 4XX 총서명주기필드의 뒷부분에 신설하였다. 이와 같은 연관기입필드는 당시의 LCMARC나 UKMARC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을 KORMARC 표준포맷에서 독자적인 방식으로 규정한 것(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개정기술위원회 1984, iv)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KORMARC 표준포맷의 연관저록 필드>

- 451 보유권의 연관표시
- 452 모체적 간행물의 연관표시
- 465 다른 판본과의 연관표시
- 466 다른 형태의 판본과의 연관표시
- 468 번역된 자료와의 연관표시
- 474 분립기입의 연관표시

KORMARC 표준포맷에서 연관저록필드를 이와 같이 4XX 총서명주기필드의 뒷부분에 신설한 것은 LCMARC의 기본구조를 따르고 있었던 KORMARC 표준포맷에서는 이 필드를 독립적으로 둘 수 있는 블록이 따로 없고, 전체 블록 중에서는 4XX 필드 뒷부분이 표시기호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생각된다.

그밖에도 KORMARC 표준포맷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부호화정보필드의 자료형태부호와 문학형식부호에는 각각 몇 가지의 자료형태와 문학형식이 추가되었으며, 045 연대부호(Chronological code or data /time), 주기사항에서 533 원본출판사항주기, 949 변형문자표시코드(Modified record code) 필드가 신설되었다. 또한 다수의 지시자와 식별자, 그리고 기술사항들의 추가, 삭제, 개정이 있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이 책 부록의 주요 개정내용(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개정기술위원회 1984, 154-161)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후 KORMARC 포맷은 한국정보관리학회 개정안을 거쳐 KS포맷으로 제정되었는데 그 과정에서의 변화를 보면 한국정보관리학회의 개정안은 표준포맷의 상당 부분을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KS포맷은 몇몇 사소한 변화를 제외하고는 한국정보관리학회의 개정안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준포맷으로부터 한국정보관리학회의 개정안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변경된 표시기호는 다음과 같다.

〈한국정보관리학회 개정안에서 삭제되거나 변경된 표시기호〉

010 등록번호필드 → 미국국회도서관 제어번호필드로 변경.

023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필드, 022로 변경됨

055 KDCP분류기호필드 삭제

060 미국국립의학도서관분류기호필드 삭제

350 가격필드 삭제

400, 410, 411, 440 개인명, 단체명, 회의명, 서명 등 유형별 총서주기필드를 440 총서명필드로 통합

451-474까지의 연관기입필드는 765-787로 옮겨졌으며 그중 474 분립기입의 연관표시필드는 삭제되고 몇몇 필드가 새로 추가됨.

800, 810, 822, 840 개인명, 단체명, 회의명, 서명 등 유형별 총서부출표목필드가 830 총서명부 출표목 필드로 통합됨.

900, 910, 911, 945 개인명, 단체명, 회의명, 서명 등 유형별 참조사항필드 삭제

949 변형문자표시 코드는 한국정보관리학회 개정안에서 삭제되었으나 KS포맷에서 다시 추가 됨

LC의 목록 레코드를 내려 받아 사용하는 경우 LC 제어번호와 그 관련 정보를 기록할 수 있도록 010필드를 미국의회도서관제어번호 필드로 변경하고 011필드를 추가하였다. 그밖에 023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필드를 022로

바꾼 것은 USMARC 포맷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KDCP(조선십진분류법)분류기호, 미국국립의학도서관분류기호 등 현재 한국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분류기호의 표시기호를 삭제하고 063 기타 분류기호필드를 신설하여 KDC, DDC, UDC 외의 분류기호는 여기에 집중시켰다. 또한 총서사항을 그 구성요소에 따라 개인명, 단체명, 주제명, 일반서명 등으로 구분하였던 것을 440, 830 등으로 통합함으로써 표시기호를 단순화시켰다.

KORMARC 표준포맷에서 4XX 총서명주기필드의 뒷부분에 두었던 연관기입필드들을 한국정보관리학회 개정안에서는 7XX 부출표목필드의 뒷부분으로 옮겼다. 이때 '기입'이라는 용어 대신 '저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변화도 눈에 띈다. 이 과정에서 분립기입의 연관표시는 삭제되고 765 원저저록, 780 선행저록, 785 후속저록, 787 비특정적 관계저록 등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표시기호의 변경은 USMARC 포맷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데이터 속성의 연관성을 고려한다면 연관저록필드는 오히려 주기사항 필드와 함께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연관저록필드에 기술되는 대부분 데이터의 성격이 전통적으로 주기사항과 관계가 깊은 것들이기 때문이다.

표준포맷의 900 이후에 설치되었던 참조필드는 한국정보관리학회의 개정안에서 삭제되었다. 자동화목록에서 참조필드의 기능은 전거통제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는 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표준포맷에서 한국정보관리학회의 개정안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신설된 필드는 다음과 같다.

〈한국정보관리학회 개정안에서 신설된 표시기호〉

**제어필드**

005 최종처리일시

006 링크필드

007 형태기술필드

**서지통정번호필드**

011 미국국회도서관제어번호링크

013 국립중앙도서관제어번호링크

017 저작권등록번호

027 표준기술보고서번호

042 검증부호

049 협력기관 소장사항표시

063 기타분류기호

066 사용자세트

088 보고서번호

**서명사항**

240 통일서명

255 수치데이터사항

263 발행예정일자

265 입수처주소

**서지내역주기**

521 이용대상자주기

533, 534 복제주기, 원본주기(표준포맷 533은 원본출판사항주기였음)

580 연관저록설명주기

**주제명부표목**

653 비통제주제명

**연관저록**

표준포맷 451-452의 것이 이치된 것 외에 765 원어저

록, 773 기본자료저록, 780 선행저록, 785 후속저록, 787 비특정적 관계저록 등이 추가로 설치됨.

850 소장기관

880 비표준코드데이터

900 이하는 로컬필드로 사용하도록 유보함.

한국정보관리학회 개정안에서 신설된 것 중 013 국립중앙도서관제어번호링크필드를 제외한 대부분은 역시 USMARC 포맷에 나타나는 것으로 표시기호까지 일치한다. 이는 KORMARC 포맷을 USMARC 포맷과 일치 시킴으로써 목록레코드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개정안에서 추가된 필드 중 011 미국국회도서관제어번호링크, 013 국립중앙도서관제어번호링크, 049 협력기관 소장사항표시 등은 목록레코드의 교류나 도서관간의 자원공유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새로 설정된 것들이다.

기타분류기호필드를 063에 신설한 것은 빈기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타' 사항은 구체적인 것들이 다 나열된 후 마지막에 '비고'의 성질을 갖도록 두어지는 것이 상례인데 비하여 063 기타분류기호필드 뒤에도 080 UDC 분류기호, 082 DDC 분류기호 등이 자리잡고 있어 어색하다. 이후 KS포맷에서는 이 필드를 085로 옮기게 되었다.

한국정보관리학회의 개정안에서 KS포맷으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다.

〈KS포맷으로 제정되는 과정에서 변경사항〉

034 수치데이터필드 추가

- 049 소장사항필드에서 등록번호, 권책기호, 별치기호를 기입하도록 추가 함.
- 053 복본의 등록번호 및 기타 정보표시필드 삭제
- 085 기타분류기호(063에서 이치)
- 265 입수처주소 필드 삭제
- 510 인용주기 추가
- 536 기금정보주기 추가
- 586 수상주기 추가
- 880 비표준코드데이터 삭제
- 890 변형문자표시 추가

변경 내용 중 새로 추가된 034 수치데이터, 510 인용주기, 536 기금정보주기, 586 수상주기 등은 한국정보관리학회의 개정안에 없었던 USMARC 포맷의 표시기호들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추가된 것이다. 265 입수처주소필드와 880 비표준코드데이터를 삭제한 것은 각각이 260 발행사항필드 및 066 사용문자세트필드와 중복된 때문으로 생각되며, 한국정보관리학회 개정안에서 삭제되었던 변형문자표시필드를 890필드에 다시 설정한 것은 컴퓨터의 자판에서 입력할 수 없는 문자, 예를 들면 한자 및 우리말 고어 등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서이다.

한국정보관리학회 개정안에서는 표준포맷에서 등록번호필드로 사용하였던 010필드를 미국국회도서관제어번호필드로 전용하고 따로 자료의 등록번호필드를 두지 않은 채 복본의 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한 053필드만을 둬으로써 등록번호필드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또한 049 협력기관 소장사항표시필드와 850 소장사항필드는 그 내용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KS포맷에서는 이를 고쳐 053필드를 삭제하고 049 소장사항 필드에서 해당자료의 등록번호 및 복본의 등록번호와 함께 복본표시를 하도록 하였으며 850 소장기관 필드에서는 종합 목록을 위하여 해당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들의 소장기관명 부호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한국정보관리학회의 개정안은 수치데이터 필드를 255필드에만 두었으나 KS포맷은 수치데이터를 034필드와 255필드에서 두 번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255필드에 나타나는 서지데이터의 부호형태를 034필드에 표시하도록 한 USMARC 포맷과 일치하는 것이나 이 두 필드는 불필요한 중복으로 보인다.

### 2. 3 KORMARC 포맷의 특성

KORMARC 단행본 KS포맷을 그 근간이 된 USMARC 포맷과 비교하여 몇 가지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KORMARC 포맷의 기본구조는 현재 국제적 표준으로 통용되고 있는 USMARC 및 UNIMARC 포맷 중 USMARC 포맷과 같으며 표시기호의 대부분도 USMARC 포맷과 일치한다. 이는 KORMARC 포맷이 USMARC를 근간으로 하여 제정되었으며 USMARC 목록레코드와 호환성을 갖도록 노력한 결과이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도서관들이 USMARC 포맷으로 작성된 목록 레코드를 내려 받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과적으로 합리적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KORMARC 포맷 가변길이필드의

종류는 USMARC 포맷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이는 USMARC 포맷의 필드들 중에서 한국 문헌을 기술하는 데는 불필요하거나 그다지 요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 것들, 예를 들면 060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Call Number, 070 National Agricultural Call Number, 074 GPO Item Number와 같은 것들이 KORMARC 포맷에서 제외되었으며, 그밖에 주기사항 등에서 많은 필드들이 제거된 것이 원인이다. 그러나 KORMARC 포맷이 한국의 국가서지 작성에 사용되어야 하는 포맷임을 감안한다면 주기사항 등에서는 필드를 좀더 세분, 확충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학교도서관과 같은 군소도서관들을 위하여 표준적인 간략 포맷을 따로 제정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군소 도서관들이 목록 레코드의 표준화를 도모하면서도 목록데이터베이스를 보다 경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현재 KORMARC 포맷은 서명저자사항을 USMARC 포맷의 예에 따라 245필드에서 한꺼번에 기술하도록 함으로써 이 필드에서 저자사항의 특성을 표시하거나 직접 표목으로 제시하는 등의 조작이 불편하게 되어 있다.

현규섭은 한국어의 구조적 특성과 자동화목록에서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245필드를 서명 필드로 한정하고 246, 247, 248, 등의 새로운 필드를 신설하여 저자명을 독립하여 입력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玄圭燮 1992, 20-21). 저자사항을 독립하여 입력하는 것은 우리말의 어문구조상 타당할 뿐 아니라 기술사항에서

저자명을 직접 표목으로 제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술사항에서 한번 입력한 저자명을 표목지시사항에서 다시 입력해야 하는 중복 작업을 줄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 방안은 추후 계속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USMARC 포맷에서는 490을 제외한 4XX 총서사항과 8XX의 총서부출표목을 그 구성요소에 따라 개인명, 단체명, 회의명, 통일총서명 등으로 세구분하고 있다(MARC 21포맷에서는 4XX의 총서사항까지 440 필드로 통합하였다). 그러나 KORMARC 포맷에서는 이들 총서사항과 총서부출표목필드를 그 구성요소에 관계없이 각각 440과 830으로 통합하였다. 총서명과 관련된 필드를 세분함으로써 야기되는 번거로움에 비해 검색을 비롯한 이용면에서 그 활용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통합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1XX 기본표목필드, 6XX 주제부출표목필드, 7XX 부출표목필드 등에서도 데이터의 구성요소에 따라 불필요하게 표시기호를 세분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통합을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대부분 도서관의 검색시스템들이 이렇게 세구분하여 검색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이를 요구하는 이용자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밖에 KORMARC 포맷은 USMARC 포맷과 같이 1XX 기본표목필드를 두고 있다. 목록규칙에서 기본표목원칙의 문제는 AACR이 2판으로 개정될 당시부터 이미 그 정당성에 이의가 제기된 바 있었으며, (Gorman, Michael and Winkler, Paul W., ed. 1978, 2, Gorman, Michael 1978, 218) 특히 오늘날



KCR을 비롯한 우리 도서관계의 경향도 점차 무기본표목의 대등표목원칙을 지향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KORMARC 포맷에서는 여전히 1XX 기본표목필드를 두고 있어 국내 도서관간의 기본표목에 관한 통일된 방침을 갖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KORMARC 포맷의 1XX 기본표목필드의 처리 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해결방안이 제시된 바(이경호 1999, 8-1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999 등)도 있으나 이 문제는 국가적으로 통일된 방침이 결정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 3. KORMARC 기술규칙

#### 3.1 제정 및 개정과정

국립중앙도서관은 KORMARC 포맷에 입력하는 기술규칙으로 ISBD를 사용하기로 하고 ISBD를 적용하면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재량사항과 예외적 결정 사항들을 정리하여 1982년 1차적으로 『국제표준서지기술법에 의한 한국문헌기술세부규칙: 한국문헌자동화 목록법에 적용하기 위하여』라고 표제한 자료집을 출간하였다(국립중앙도서관전산실 1982, 머리말).

KORMARC 포맷 개발 당시 그 근간이 된 LCMARC 포맷은 이미 ISBD를 기초로 개정된 AACR2로 입력되고 있었으며, KCR도 조만간 ISBD에 준하여 개정될 것이 확실하였으므로 장차 KORMARC 레코드의 도서관간 교류와 통합을 위해서는 KORMARC 기술규칙도 ISBD와 같은 국제적 표준안을 따를 필

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후 국립중앙도서관은 ISBD를 사용함으로써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재량사항과 예외적으로 규정하여 왔던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하나의 목록기술규칙으로 편성하고 이를 1983년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 기술규칙: 단행본용』(KORMARC 기술규칙) 예비노트판으로 출판하였다. 이는 KORMARC 기술규칙이 당시까지는 주로 국립중앙도서관전산실에서만 사용되었으나 국립중앙도서관의 목록 작업 전반에 걸쳐 적용되기 시작하고, 아울러 국립중앙도서관의 인쇄카드가 여러 도서관에 배포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도서관들에게도 이 규칙이 공지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국립중앙도서관전산실 1983, 권두)

KORMARC 기술규칙 예비노트판은 1985년 예비노트보완판으로 개정, 출간되었다. 예비노트보완판은 권두에서 “전판의 체제, 용어, 기술내용 및 순서와 예시, 실 예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수정을 가하되,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였다. 따라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고도 그 수정 채택을 다음 판으로 미룬 부분도 있다”(국립중앙도서관전산실 1985, 권두)라고 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예비노트판에 비하여 기본 체제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 다만 일부 규칙의 조항은 그 순서가 정리되거나 보완되었으며, 일부 규칙의 삭제와 추가가 있었다.

예비노트보완판에서 삭제 및 추가된 규칙 중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그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비노트보완판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삭제 혹은 변경된 예비노트판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 복간본의 관칭

註解, 新譯 등이 달린 복간본의 서명은 이를 포함한 본서명을 반드시 부출한다(삭제).

- 잡제의 대등서명

잡제에 대등서명이 있을 때에는 본서명의 대등서명 다음에, 부서명의 대등서명이 있을 때에는 부서명의 대등서명 다음에 기술한다(잡제의 대등서명은 생략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변경).

- 딸림자료의 형태사항

딸림자료의 형태사항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함(삭제).

- 다른형태의 총서명

표제면이나 판권기에 나타나 있는 총서명 외에 다른 부분의 총서명이 식별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이를 주기한다(삭제).

예비노트보완판에서 추가된 규칙은 다음과 같다.

- 관제

너무 긴 관제는 줄여 적거나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추가).

- 여러 문자로 기재된 저자명

외국인의 원명과 한국형 이름이 함께 기재되어 있을 경우 원명을 저자표시로 기재하고 한국형 이름은 주기한다(추가).

- 저작역할어 보기

역할을 달리한 저자들의 저작역할어가 표제면이나 판권기에 나타나 있지 않을 경우 이를 [ ]에 넣어 보기한다(추가).

- 저자표시 보기

저자명의 일부가 생략되어 관용적 어귀로만 나타나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보기한다(추가).

- 발행년

발행년의 추정이 가능한 경우 표시방법(추가).

총서사항에서 표제면이나 판권기에 나타나 는 총서명 외의 다른 형태의 총서명을 주기하 도록 한 규칙이 삭제되었다. 총서사항의 으뜸 전거(주정보원)가 당해 출판물로 되어있고, 또한 총서사항에는 여러 개의 총서명을 병기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굳이 주기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규칙을 삭제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밖에 삭제된 규칙들은 대부분 기 술의 복잡성이나 불필요성 때문에 삭제된 것 으로 보인다. 다만 딸림자료의 형태사항에 관 한 규칙이 삭제된 것은 KCR3이나 ISBD의 규 칩들과는 역행하는 것으로 특이하다.

반면에 예비노트보완판에서 관제를 줄여서 적을 수 있도록 한 규칙, 저작역할어를 보기하 도록 한 규칙, 추정한 발행년을 표시하는 규칙 등이 추가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그 필요성 이 인정되는 세부적 규칙들로 생각된다.

이후 KORMARC 기술규칙 예비노트보완 판은 한국정보관리학회의 심의를 거쳐 1991년 12월 25일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KOR-MARC)에 관한 연구 - 단행본용기술규칙 -” 사업의 최종보고서 형식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장에게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를 예비노트보완판과 비교해 보면 몇 군데의 자구(字句)를 수정한 것 외에 본서 명과 총서명의 관칭 및 관제를 글자 수를 기 준으로 판정(10자 이상인 경우 관제, 10자 미 만인 경우 관칭으로 취급)하던 것을 독립성 여부에 따라 판정(서명으로부터 독립적인 문

구는 관제, 종속적인 문구는 관칭으로 취급) 하도록 한 정도가 바뀌었다.

그밖에 예비노트보완판까지는 저자사항에서 동일 기능을 가진 저자들을 연속해서 기술할 때 반쌍점( ; )을 사용하여 각각의 저자를 구분하도록 예시하였으나 이 보고서는 쉼표(,)를 사용하도록 예시하고 있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 서두의 구두법에 관한 규정에는 구두점 사용방식을 이렇게 변경한데 대하여 별도의 설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ISBD의 구두점 사용방법에 따라 그 규정을 개정하였는지 아니면 예를 잘못 표시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 3. 2 KORMARC 기술규칙의 특성

KORMARC 기술규칙은 몇 차례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 최종적으로 한국정보관리학회의 연구보고서형식으로 출판되었으나 그 기본 틀은 1985년의 예비노트보완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 절에서는 예비노트보완판을 중심으로 KORMARC 기술규칙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 3. 2. 1 구성의 특성

KORMARC 기술규칙은 그 표제가 말해주듯이 기본표목이나 표목의 형식에 관한 규칙 없이 기술규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KORMARC 기술규칙은 문단나누기와 기선, 기술유니트카드 견본 등을 예시해 두고 있으며 부록으로 외국인명표기의 원칙(외국인명을 표목으로 삼거나 기술사항에서 기술하는 형식)을 첨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서지기술규칙인 ISBD와는 달리 목록 규칙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다. 특히 문단 나누기나 기선에 대한 규칙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카드목록의 출력을 전제로 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KORMARC 기술규칙의 구조를 그 근간이 된 ISBD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KORMARC 기술규칙에는 ISBD에 포함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KORMARC 기술규칙에는 국제표준 도서번호나 구득조건표시에 관한 규칙이 없다. KORMARC 기술규칙에 이러한 규칙이 없는 것은 국제표준도서번호나 가격표시를 서지사항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사무사항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거나, KORMARC 포맷에서 이러한 필드를 기술사항이 아닌 다른 블록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둘째, KORMARC 기술규칙은 다단계기술(多段階記述)에 관한 규칙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대신 서명저자표시사항의 말미에서 전집에 관한 기술규칙을 두고 다권본은 다단계 기술 대신 각각 분할하여 단행본과 같이 기술하거나, 전집명이나 총서명을 본서명으로 하여 종합기술을 하되 각 권의 내용은 주기하도록 하였다.

다권본의 이러한 기술원칙과 관련하여 현규섭은 "(KORMARC 포맷에서는) 가능하면 분할입력방식을 택하고 있다"(玄圭燮 1986, 95)라고 함으로써 KORMARC에서는 다권본에 대하여 다단계기술보다는 각각 독립된 레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을 밝혔다. KORMARC에서 다권본을 이와 같이 분할

입력하도록 한 것은 MARC 형식의 목록에서는 각 권에 대하여 목록 레코드를 따로 만드는 것이 관리상 편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 3. 2. 2 내용의 특성

KORMARC 기술규칙은 기본표목에 관한 원칙이 미비하게 출판되었을 뿐 아니라 KCR3과 같이 기본표목을 채택하지 않고 기술단위 방식을 채택한다는 언급도 없다. 다만 KORMARC 기술규칙 중에서 들고 있는 카드목록의 예는 표목이 기재되지 않은 기술단위카드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기선 사용법의 부가적 설명 어구에서는 “부출 지시된 사항을 표목으로 삼을 때는 서지작성기관의 재량에 따른다”(국립중앙도서관산실 1985, 7)라고 하여 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그리고 KORMARC 포맷이 저자명을 기본표목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KORMARC 기술규칙은 저자명기본표목 원칙을 채택하되 기본표목과 부출표목의 기재 형식은 목록작성 기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목록작성 방식은 기본표목과 부출표목을 구분하지 않는 무기본표목 기술단위방식으로 응용할 수도 있다.

한편, KORMARC 기술규칙은 ISBD를 근간으로 하여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규칙의 내용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 서지기술의 원칙에 대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곳이 많다. 여기서는 KORMARC 기술규칙과 ISBD 간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상의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KORMARC 기술규칙의 특성

을 살펴보고자 한다.

KORMARC 기술규칙의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현규섭은 서지기술사항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들었다(玄圭燮 1983, 6-7).

제1원칙(역사성의 원칙): 서지기술은 한 문헌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였음을 기록하는 사실증명행위이다. 기술된 목록은 한 시대, 한 시점에서 발생한 문헌의 존재를 기록하는 행위의 소산이어야 한다. 이 기록은 영구적인 것으로서 실혹 문헌 그 자체가 인멸되더라도 기술된 목록만은 남는다는 사실에 기초되어야 한다. ...

제2원칙(사실통지의 원칙): 서지기술은 문헌에 나타나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여 이를 통지하는 작업이다. 문헌에 나타나 있는 사실이 다음 세대에 또는 타인에게 있는 그대로 통지되어야 한다. ...

제3원칙(소거가치의 원칙): 기술되는 요소의 배치순서는 한 요소가 소거될 때 미치는 전체 기록에 대한 가치(즉 소거의 효용가치)로써 판정한다. ...

제4원칙(식별성의 원칙): 소거가치가 동등한 요소의 배치순서는 식별의 효과로서 차등지운다. ...

제5원칙(표준성의 원칙): 한 목록자에 의하여 작성된 서지기술은 다른 목록자에 의하여 재반복되더라도 언제나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

이러한 서지기술의 원칙들은 새로운 것은 아니며 전통적으로 목록규칙에서 강조되어 왔던 것들이다. 또한 목록의 목적이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원칙들이 지켜지는 것은 타당하다. 다만 종래의 목록규칙들이 기록공간이 협소한 카드목록이나 인쇄목록을 염두에 둔 것, 혹은 '기술사항의 명료성 강조'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서지기술의 기본원칙들을 철저히 지키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ISBD나 KORMARC 기술규칙이 모두 이러한 원칙들을 완전하게 지키고 있지못하나 그런 중에서도 KORMARC 기술규칙은 ISBD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러한 원칙들을 보다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한 흔적들을 볼 수 있으며 그 결과가 대부분 ISBD와의 차이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KORMARC 기술규칙이 서지기술의 기본원칙을 강조함으로써 ISBD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ISBD에서 본서명이나 서명잡정보(부서명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임)가 너무 긴 경우 이들을 축약해서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KORMARC 기술규칙은 어떤 경우에도 서명이나 부서명을 축약하여 기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ISBD에서 서명을 줄여서 적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서지기술의 식별기능 만을 강조한 데서 발생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동양의 목록학은 서지기술의 역사성 즉 '서지기술은 한 문헌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였음을 기록하는 사실 증명행위로서, 기술된 목록은 한 시대 한 시점에서 발생한 문헌의 존재를 기록하는 행위의 소산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중시하였으며 이는 오늘날의 목록에서도 여전히 요구되는 사실이다. 문헌이 산일(散逸)된 이후에라도 이를 고증할 수 있는 역사적 기록으로서의 목록의 기능도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문헌의 역사적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 서명의 일부를 축약한다는 것은 목록의 역사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이러한 관점

에서 KORMARC 기술규칙은 본서명 부서명 등과 같이 문헌의 역사성을 보장해야 할 서지사항을 축약하여 기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KORMARC 기술규칙의 이러한 특성은 서지기술의 역사성을 강조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둘째, KORMARC 기술규칙은 관칭과 관제의 취급에서도 ISBD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ISBD(M)에서는 관제(avant-titre)를 '표제지 혹은 대체 표제지의 본서명 도입부나 본서명 위에 나타나는 서명잡정보(other title information)' (IFLA 1978, 2)라고 정의하고 이를 본서명에 이어서 기술하거나 주기사항으로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KORMARC 기술규칙은 본서명 앞의 문구를 관칭과 관제로 구분하고, 특히 관칭으로 구별된 것은 그 본래의 위치인 본서명 앞에 원괄호로 싸서 기술하도록 함으로써 관칭의 실체를 인정하고 기술에서 서명의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규칙 역시 역사성의 원칙이나 사실통지의 원칙을 강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ISBD(M)은 부서명을 서명잡정보(other title information)에서 포괄적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ISBD는 부서명과 잡제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이에 비하여 KORMARC 기술규칙은 부서명을 '본서명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서명' 그리고 잡제를 '본서명, 부서명, 별서명, 대등서명으로 기술되지 않는 나머지 서명'이라고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구분하고 그 취급 방법에서도 부서명은 후보 검색어로 정의함으로써 반드시 부출표목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KORMARC 기술규칙에서 관칭과 관제를 글자 수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관칭과 관제가 갖는 속성을 기준한 것이 아니고 문자의 수라는 외형적 특성에 따른 것이므로 그 타당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있겠지만 그 구분의 애매함 때문에 야기되는 기술상의 혼선을 제거하고 확실성은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서명이 없는 경우 이를 보기 할 때 저자명을 본서명으로 삼거나 저자명도 없을 경우는 본문의 첫머리 10자 내외를 본서명으로 채택하도록 함으로써 어떤 경우에도 보기된 본서명이 확실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KORMARC 기술규칙의 특성, 즉 언제 누가 편목작업을 하더라도 가능한 한 목록레코드의 확실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표준성의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생겨난 결과이다.

그밖에 MARC 레코드에서 한국어의 어문구조가 갖는 이점(利點)을 활용하기 위해 KORMARC 기술규칙이 ISBD와 입장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현규섭은 ISBD의 기술형식에서 저자사항이 서명사항에 종속되는 구문형식을 갖게 된 것은 영어의 어문구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기존의 목록규칙에서는 Jewett가 제창하고 ISBD에 의하여 강화된 사실기록의 원칙(출판물에 나타난 그대로 전사(transcription)하는 원칙)에 속박되고 있었다. 저자표시는 사실 그대로 전사되면서 영어의 어문적 구조에 속박되고 있었다. 모든 저자표시는 그 앞에 주격을 필요로 하는 피동적 서술체로서 강화되어왔다. ISBD를 위시하여 UNIMARC에 있어서도 영어의 피동

적 서술체로서의 저자표시는 너무도 당연한 원칙으로 수용되어왔다(玄圭燮 1992, 30).

한국어의 어문구조는 저자사항을 서명사항으로부터 독립하여 기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동화목록법에서 저자명을 기술사항으로부터 직접 표목으로 제시하거나 지시기호에 의해 저자명의 성격을 표시해주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그러나 국제적 표준화 문제 때문에 KORMARC 기술규칙에서도 저자명을 완전히 독립하여 기술하도록 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KORMARC 기술규칙의 저자표시기술원칙 등 곳곳에서 저자표시가 서명에 종속된 사항이 아니고 독립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저자명을 서명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맥락에서 의도된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KORMARC 기술규칙은 원서명과 대등서명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대등서명은 반드시 서명잡정보 다음에 기술하도록 함으로써 ISBD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순서 상의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나 그 저변에는 대등서명이 본서명에 종속적이기는 하지만 검색에서는 비종속적이며 따라서 대등서명은 기본검색어가 되어야 하고 본서명과는 독립된 배치영역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데이터베이스 이론에 입각한 주장(玄圭燮 1993, 12-14)을 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KORMARC 기술규칙의 특징들을 종합해 보면 KORMARC 기술규칙은 ISBD와 같은 국제 표준안에 기초를 두는 한편 전통적 서지기술의 원칙을 보다 철저히 지키고, 한국어의 구조적 이점을 KORMARC

포맷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심한 부분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한 국제적 표준으로부터의 이탈은 목록 레코드의 교류와 통합을 위하여 차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되며, 한편으로 KORMARC 기술규칙이 지향하고 있는 원칙들 중 그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들은 목록의 국제적 교류에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새로 제정될 목록규칙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4 요약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표준적 자동화목록법인 KORMARC 포맷과 KORMARC 기술규칙의 제정 및 개정과정, 그리고 그 특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KORMARC 포맷은 LCMARC과 UK-MARC를 근간으로 하여 1980년 실험용포맷이 개발된 이후 1981년 표준용포맷으로, 1984년 표준포맷으로 개정되었으며, 그후 1991년 한국정보관리학회의 개정안을 거쳐 1993년 현재의 KS포맷으로 공포되었다.

KORMARC 포맷을 그 근간이 되었던 USMARC 포맷과 비교할 때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일부 가변길이필드의 변경이나 추가, 삭제가 있었으나 구조나 표시기호의 대부분을 USMARC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목록 레코드의 교류와 통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다만 목록레코드의 국제적 통합과 교류에 크

게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KORMARC 포맷의 일부 필드는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245 서명저자사항필드에서 저자사항을 독립하여 기술할 수 있도록 새로 246, 247, 248 등에 저자명필드를 독립하여 신설하는 방안, 7XX 뒷부분에 설정되어 있는 연관저록필드를 데이터 속성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오히려 주기사항필드나 현재 표시기호가 덜 복잡한 4XX나 8XX필드로 옮기는 방안, 그리고 우리 도서관계의 목록업무에서 가장 혼란한 문제 중 하나인 기본표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XX 기본표목필드를 처리하는 방안 등은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KORMARC 포맷은 국가서지의 작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서 학교도서관과 같은 군소 도서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필드들도 많이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군소 도서관들이 표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간략 포맷을 따로 제정하여 이들 도서관들이 목록을 표준적으로 작성하면서도 목록 데이터베이스를 경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KORMARC 기술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 전산실에서 ISBD를 적용하면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재량사항과 예외적 사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탄생하였다. 1982년에 이러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국제표준서지기술법에 의한 한국문헌기술세부규칙: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에 적용하기 위하여』를 출간하였으며, 이후 1983년에는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 기술규칙: 단행본용』 예비노트판을, 1985년에는 『한

국문전자동화목록법 기술규칙: 단행본용』 예비노트보완판을 출간하였고, 1991년에는 한국정보관리학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KORMARC)에 관한 연구: 단행본용 기술규칙』 사업의 최종보고서 형식으로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되었다.

이 중 예비노트보완판을 중심으로 KORMARC 기술규칙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KORMARC 기술규칙의 구성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① 기본표목이나 표목의 형식에 관한 규칙이 미비하다. 그러나 외국인명표기의 원칙을 부록으로 첨부하였으며 문단나누기와 기선의 사용법, 기술유니트카드 견본 등을 예시해 두고 있다. 이러한 구성으로 보아 표목에 관한 규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ORMARC 기술규칙은 단지 서지기술의 표준안인 ISBD와는 달리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규칙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KORMARC 기술규칙은 카드 목록의 생산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KORMARC 기술규칙에는 국제표준도서번호 및 구독조건표시에 관한 규칙이 없다. 국제표준도서번호 및 구독조건표시에 관한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들 데이터들을 서지사항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사무사항으로 간주하였거나 KORMARC 포맷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기술사항이 아닌 다른 블록에 입력하도록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 ③ KORMARC 기술규칙에는 다단계기술

에 관한 규칙이 없다. 다단계기술규칙을 따로 두지 않은 것은 MARC 형식의 목록에서는 다권본의 경우 각 권을 독립된 권으로 분할하여 입력하는 것이 관리상 편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둘째, KORMARC 기술규칙은 기본표목에 관한 원칙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부출지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기본표목원칙을 채택하되 기본표목과 부출표목을 기술하는 형식은 목록작성 기관의 재량에 따르도록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프로그램의 조정예 의해 무기본표목방식으로도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KORMARC 기술규칙을 그 근간이 된 ISBD와 비교하여 기술규칙 내용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KORMARC 기술규칙은 서명, 부서명 등을 축약하여 기술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서명의 관칭은 이를 원괄호로 씌워 서명 앞 본래의 위치에 그대로 놓이게 함으로써 원형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KORMARC 기술규칙의 이러한 규칙은 서지기술의 역사성과 사실통지의 원칙을 강조한 결과이다.
- ② KORMARC 기술규칙에서 본서명을 보기 할 때 확실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서명과 잡제, 관칭과 관제의 구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처리방법도 각각 달리한 것은 서지기술의 표준성을 강조한 것이다.
- ③ KORMARC 기술규칙은 한국어 구문의



구조적 이점을 살려 서명과 저자사항은 각각 독립된 것으로 간주하려고 노력하였다. 서명사항으로부터 저자사항을 독립시키게 되면 저자명을 기술사항으로부터 직접 표목이 되도록 조작하거나 저자명의 성격을 표시하는 데 유리하다.

이와 같이 KORMARC 기술규칙은 서지기술의 원칙을 강조하고 한국적 전통을 감안하여 일부 규칙을 독자적으로 규정함으로써 ISBD와

같은 국제적 표준안으로부터 일탈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KORMARC 기술규칙이 갖는 이와 같은 특성들 중에는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들이 많다. 그러므로 목록레코드의 국제적 교류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KORMARC 기술규칙의 이러한 합리적 특성들이 국가적 표준목록규칙에도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국립중앙도서관 업무자동화추진위원회 준비반, 제정. 1981.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한자목): 표준용포맷제1판: 단행본용』,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업무자동화추진위원회 준비반, 제정. 1982.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에 준한 외국도서종합목록자동화목록법: 단행본용』, 제1판.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개정기술위원회, 제정. 1984.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한자목): 표준포맷: 단행본용』,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전산실, 편. 1982. 『국제표준서지기술법에 의한 한국문헌기술세부규칙: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에 적용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전산실, 편. 1983.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기술규칙: 단행본용: 예비노트판』,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전산실, 편. 1985.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기술규칙: 단행본용: 예비노트보완판』,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김태수, 김이경, 남영준, 문성빈, 유사라, 정동열, 정영미, 최석두. 1996. 『기계가독목록의 이해』, 서울: 정보처리연구회.
- 도태현. 2000. 한국의 목록규칙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1954년 이전까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2): 139-167.
- 도태현. 2001. 한국의 목록규칙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1954년부터 1980년 이전까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2(3): 199-226.
- 이경호. 1999. 한국문헌목록정보(KORMARC)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0(3): 295-322.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동목록작성용 입력지침서의 초안” [cited 1999. 11. 16]

- <www.riss4u.net/UNIONhtm/union-htm/input.html>
- 한국정보관리학회. 1991.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KORMARC)에 관한 연구: 단행본용포맷』,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한국정보관리학회. 1991.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KORMARC)에 관한 연구: 단행본용 기술규칙』,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玄圭燮. 1983. 書誌記述의 原則確立을 위한 覺書. 『도서관』, 38(1): 5-13.
- \_\_\_\_\_. 1993. 자동화목록법(MARC)의 서명 속성 분해: 속성데이터 편성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연속적 연구 2. 『도서관』, 48(6): 3-22.
- \_\_\_\_\_. 1992. 자동화목록법(MARC)의 저자 표시 독립원칙: 속성 데이터 편성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연속적 연구 I. 『도서관』, 47(4): 3-31.
- \_\_\_\_\_. 1986. 『自動化目録法序説: KORMARC 포맷을 중심으로』, 서울: 亞細亞文化社.
- 丸山昭二郎, 井上哲也 共編. 1970. 『洋書目録マニユアル』,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 Gorman, Michael and Winkler, Paul W., ed. 1978.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2nd ed. Chicago: ALA.
- Gorman, Michael and Winkler, Paul W. ed. 1988.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2nd ed., 1988 Rev. Ottawa: Canadian Library Association.
- Gorman, Michael. 1978. "The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Second Edition."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22(3): 209-226.
- IFLA. 1978. *ISBD(M):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for Monographic Publications*. 1st standard ed. rev. London: IFLA International Office for UBC.
- Network Development and MARC Standard Office. 1994. *USMARC Format for Bibliographic Data: Including Guidelines for Content Designation, I*. 1994 ed. Washington: Library of Congress.